

# 고등교육 정책소식

대학교육

뉴스레이더

Higher Education 2011\_11+12

## |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

국가장학금 1.5조원을 투입하고 대학자구노력을 0.75원 이상 유도하여

▶전체학생 평균 5% 수준의 명목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7분위 이하 학생 평균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 기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9월 8일 1조 5천억 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 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2조 2천5백억 원 이상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 원)의 지급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1조 5천억 원 중 절반 수준인 7,500억 원이 이러한 소득분위별 최저지원에 사용될 전망이다. 1조 5천억 원 중 나머지 7,500억 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되며, 학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 재원은 5% 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

할 계획이다.

대학의 자구노력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의 형태로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7,500억 원을 매칭하여 대학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1조 5천억 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500억 원 이상의 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예상되며,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 원, 1분위는 321만 원, 2분위는 231만 원, 3분위는 186만 원, 4~7분위는 96만 원, 8~10분위는 38만원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등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 <국가장학금 체계 통합·정비>

정부는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통합하여 I 유형과 II 유형으로 국가장학금 체계를 정비하였다. I 유형은 저소득층 학생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할 계획이며 II 유형은 대학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학 실정에 맞는 장학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대학의 자구노력 이행관련 주요사항>

II 유형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15개 평가 미참여 종교계대학의 신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II 유형은 대학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되며, 자구노력 이행과 점검을 위하여 대학과 장학재단 사이에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I 유형과 II 유형은 모두 대학을 경유하여 지원되며, 국가장학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이 MOU체결 및 자원 배분 등의 과정에서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급업무를 행정 지원할 예정이다.

#### <대학의 자구 노력 유도>

정부의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0.75조 원)과 연계하여 대학으로 하여금 '12년 중 7,500억 원 이상의 등록금 동결·인하 등 자구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등록금 동결은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할 예정이다.

등록금 인하는 인하 여력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적립금 관련 제도 개선과 대학의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에 관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등을 통해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13~'14년 지원 계획>

이번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12년 정부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부분만 우선 발표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6월 23일 발표한 내용에 담긴 '13~'14년 중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든든학자금 제도 개선>

'10년 1학기부터 도입된 든든학자금(ICL)과 관련하여 이자부담 경감, 이용제한 축소 등을 통해 든든학자금의 낮은 이용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군입대기간 중 이자면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교과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 | 2011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13일 11:00시(파리현지기준) 2011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에 발표하는 2011년 OECD 교육지표는 '09년 통계자료 기준(재정통계 '08년 결산)으로 총 29개 교육지표를 4개 장(Chapter)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으며, 총 42개국(OECD회원국 34, 비회원국 8)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OECD 교육지표 중 우리나라 관련 주요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이수율(80%)과 고등교육 이수율(39%)은 OECD 평균(고등학교 73%, 고등교육 30%)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와 고등교육 이수율은 각각 98%, 63%로 작년(고등학교 98%, 고등교육 58%)에 이어 OECD 국가 중 각각 1위를 차지하였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09 읽기 점수에서 우리나라는 평균 점수 539점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였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하위 25%)을 극복하고 상위 25% 이내 PISA 읽기 성적을 거둔 학생의 비율도 14.0%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

교육재정 측면에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정부부담 4.7%, 민간부담 2.8%)로 OECD 평균 5.9%(정부부담 5.0%, 민간부담 0.9%)보다 1.7%p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슬란드(7.9%)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전년(총 7.0%, 정부부담 4.2%) 대비 정부부담이 0.5%p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 학생 비율은 1.6%로 OECD 평균(8.7%)보다 낮으나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으며, '00년 대비 '09년 외국 학생의 변화지수(증가율)는 14.8배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2%로 OECD 평균(4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자의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11%로 OECD 평균(28%)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학습시간은 평균 119시간으로 OECD 평균(58시간)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미국 달러기준 PPP 환산액으로 할 때, 국·공립학교 교사의 초임연간 법정 급여(초등학교 \$30,522, 중학교 \$30,401, 고등학교 \$30,401)는 OECD 평균(초등학교 \$29,767, 중학교 \$31,687, 고등학교 \$33,044)과 유사하나 15년차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초등학교 \$52,820, 중학교 \$52,699, 고등학교 \$52,699)는 OECD 평균보다 높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을 받은 25~64세 성인 전일제 근로자의 임금 대비 초·중·고등학교 15년 경력 교사의 연간급여 비율은 각각 1.08로서,

OECD 평균(초등학교 0.77, 중학교 0.81, 고등학교 0.8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5명, 중학교 19.9명, 고등학교 16.7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16.0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3.5명)을 상회하나, 전년(초등학교 24.1명, 중학교 20.2명, 고등학교 16.5명)에 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OECD는 이번 조사결과를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할 예정이며, 한국의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는 12월 중으로 한글 번역본을 발간·배포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hcesi.kedi.re.kr)에도 탑재할 계획이다.

##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본격 시행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선진화 방안'(2011.5)의 후속조치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9월 21일(수) 발표하였다.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은 9. 22(목) ~ 10. 4(화) 기간동안 인증수행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인증을 신청하게 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위원회」(위원장: 최영출 충북대교수)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중국 등 개도국의 고등교육 수요증대와 한류

(韓流) 확산, 교과부·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노력 등에 힘입어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05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여, 2010년 83,842명을 거쳐 금년말 9만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며, 빠르면 2012년 10만 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은 수도권에 절반(서울 40%)이 집중되어 있으며, 경상지역 19.6%, 충청지역 16.5%, 전라지역 10.6% 순으로 수학하고 있다. 현재, 160여 개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출신국가별 분포를 보면 중국(68.9%), 일본(4.6%), 몽골(4.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외국인 유학생 관리·역량 인증제」 주요내용

「인증제」 도입은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대응하는 질 관리 미흡으로 한국 대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유학생 유치·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여 국내대학 유학생 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재정수단으로 연명하는 행태를 단절하며, 더 나아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 교과부 8개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구조개혁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8개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는 10월 4일(화) 교육과학기술부 대회의실에서 이주호 장관, 8개 교육대학교 총장 및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양성대학교 구조개혁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 22일 8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칭함)가 발표한 구조개혁성명서가 9월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택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호간의 역할과 추진과제들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체결에 참여한 교원양성대학교는 교원양성이라는 특수목적 대학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총장공모제, 특성화 및 상호연계 등을 담은 별도의 자체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하게 되며, 교과부는 구조개혁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교원양성대학교 구조개혁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장 공모제 도입
-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 구성
- 교원양성대학교 특성화
- 교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

MOU 체결식에서 김선배 춘천교대 총장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국제화, 다양화 등 교육환경 변화에 교원양성대학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와 동 구조개혁방안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양성대학교들의 자발적인 개혁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이 대학들이 “총장공모제, 특성화 등의 내부 구조개혁을 통해 우수 교사를 양성함으로써 공교육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2011년 12월까지 관련 법

령을 개정하여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원양성대학교는 2012년 3월 이후 선출되는 총장부터 총장공모제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이번 교원양성대학교 구조개혁방안에 참여하지 않은 부산교대는 국립대학들에 대한 평가결과 지난 9월 23일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기 발표된 일정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내용 등이 포함된 자체 구조개혁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교과부는 자체계획에 대한 이행점검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교대도 MOU 내용에 포함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교과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부산교대와 광주교대 총장 등은 교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어 특성화 추진, 박사과정 설치 등의 구조개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향후 학생정원 조정 등에 있어서도 대학의 사정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타 대학들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전망이다.

###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의 자체 구조개혁 계획 수립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0월 7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의 자체 구조개혁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을 발족하여 컨설팅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은 총 3개팀으로 구성된다. 1팀은 강원대·강릉원주대, 2팀은 충북대·군산대, 그

리고 3팀은 부산교대를 컨설팅하게 될 예정이다. 각 팀은 국립대학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국립대학 통·폐합심사위원회 위원', 구조개혁 전문가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그리고 대학경영컨설팅 경험자(컨설턴트, 회계사 각 1명)를 포함하여 팀별로 4명씩 구성된다.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은 국립대학 평가에서 해당 대학들이 취약했던 부분의 개선과 국립대학 선진화 과제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은 컨설팅 과정에서 해당 대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컨설팅(안)이 해당 대학의 자체 구조개혁계획 수립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입 정원의 특별전형개선,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와 설치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1년 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동일계 특별전형 존치 및 재직자 특별전형 활성화>

개정된 내용 중 대입 정원의 특별전형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열악한 지역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대상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서·벽지' 지역 학생을 추가하였다. 2015학년도부터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은

동일계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동일계 특별전형 선발상한은 3%에서 1.5%로 축소하였다. 교과부는 당초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의 선취업·후진학 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학년도부터 동일계 특별전형을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예고('11. 7. 6~26) 결과 특성화고 교원·학부모 및 학회 등이 제도 존치를 요구하여, 특성화고가 취업중심학교로 개편될 수 있도록 동일계 특별전형을 존치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으로 변경하였다.

마이스터고는 '15학년도 폐지, 특성화고는 3%('13학년도)→1.5%('15학년도) 축소 등 개정안에는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직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대학에 정원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제도 <동일계 특별전형 존치 및 재직자 특별전형 활성화>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도입('11.11.20은 시행)>

교과부는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달 안으로 '산업체 경력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지정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등을 심사하여 11월에 해당 대학(학과)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사를 기다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한국 대학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홍보하기 위한 채널이 되고자 국내 고등교육 현황 및 회원 대학 소식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교협 영문 홈페이지에 제공합니다. 귀 대학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를 국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선별·번역 후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사 보내주실 곳 : [weeklynews@kcue.co.kr](mailto:weeklynews@kcue.co.kr)

| 지난 주간대학교육(국문) 보기 : <http://www.kcue.or.kr/> → 대학교육소식 → 주간대학교육

| 회원 대학 소식(영문) 보기 : <http://english.kcue.or.kr/>  
→ News on South Korean Higher Education  
→ Member Universities News

### ※ 구독신청

대교협 홈페이지 내 대학교육소식 메뉴에서 신청해 주시면,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